

교회 성만찬을 연장하여 나누는 예배 순서

교회를 출발하는 연장된 성만찬 봉사팀에 앞서, 목사는 다음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한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떡으로
엘리아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심과 같이
이 성례전에 임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양육시키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속한
우리의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팀 멤버들은 항상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비슷한 말로 시작한다:

우리는 () 교회에서 온 ()와 ()입니다. 교우님을
방문하여 교회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피심방자와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우의 관심과 기쁨을 듣고
기억하여 기도에 반영한다. 모두가 성만찬을 나눌 준비가 되면, 빵을 꺼내고 잔에
부음으로서 준비를 한다. 장로와 집사는 참석한 다른 이들이 있으면 함께
예배하도록 초청한다.

환영의 인사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아침 우리 회중이 모여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또한 성령의 선물로서 주님의 임재 하심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떡과 축복의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과 교통함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백

상황이 허락한다면 다음과 같은 혹은 비슷한 죄의 고백의 기도가 이어진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실수를 범하고 주님의 길에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리와 욕망을 심히 좇아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소서.
참회하는 자들을 주님의 약속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소서.
그리고 허락하시길, 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부디 거룩하고, 의로우며, 겸손한 삶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광스러이 살게 하옵소서.

용서의 선언

장로는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삶은 지나갔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

성경봉독은 아침 설교 본문을 읽는다. 이 때 집사가 말씀을 읽음이 적절하다.

말씀의 해석

연장된 성만찬 봉사팀에게 목사는 아침 설교의 간단한 요약を提供하거나 팀원 중에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여 전할 수 있다. 주일예배에서의 개회기도 혹은 대표기도를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와 증보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혹은 비슷한 기도를 한다. 이 때 집사가 기도를 인도함이 가장 적절하다. 개인 혹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추가할 수 있다.

자비의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을 가져온
부활의 새벽을 우리는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감사 드립니다:
주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
모든 용서와 치유의 선물...

가족과 친구의 지속된 사랑...
주님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교제...
자비하신 전능의 하나님,
이 지친 세상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곳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특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지구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출발점이자 안식처인,
그리고 매일 매일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우리의 손을 사용 하시사
주님의 창조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 하시사
이 세상을 위하여 주시는 새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 복

장로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노라.

*떠나면서, 봉사팀이 성만찬을 갖고 다음에 언제 올 것인지를 알려준다. 보통
심방은 20-30 분이 적당하다. 봉사팀원들은 피방문자가 피로해 하거나 불편한
점들을 민감히 잘 파악하여 예배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권한다.*